

HCI4UCE 학회 참관기

1. 일시: 2009. 12. 13 ~ 2009. 12. 16
2. 장소: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3. 참석자: 이영설
4. 작성자: 이영설
5. 내용

내가 참석하는 MoMM 과 IIWAS 학회가 이번에는 동시에 개최되었다. 덕분에 참가 논문수는 196개로, 지금까지 참석했던 어떤 학회보다 많은 논문 숫자를 자랑한다. 그러나 항공편에 따른 일정상 첫째 날은 거의 참석이 어렵기 때문에 첫째 날의 행사는 리셉션에 참석하고 학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첫 날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하고 바로 학회장을 찾아갈 생각이었지만, 모노레일에서 내리자마자 폭우가 쏟아져서 호텔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아마 이 시기가 말레이시아에서는 우기 였던 모양이다. 미리 날씨를 확인하고 평균기온이 25~30도라 가벼운 옷을 준비했지만 비가 이렇게 올 거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었다.) 개최지인 말레이시아의 Asia E-university 로 가기 위해서 모노레일에 몸을 실었으나 웹 사이트에 있던 약도에는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믿었던 구글 어스조차 그 위치를 확실히 알려주지 않았다. 게다가 비가 말 그대로 양동이처럼 쏟아졌기 때문에 노트북을 들고 다니기는 무리였다. 그래서 일단 미리 인쇄해둔 위성사진 한 장과 호텔 근처의 재래 시장에서 간신히 구입한 우산 하나를 들고 학회장으로 향했다. 모노레일 반대편에 학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도와 주변 지리를 살피면서 학회장에 도착했다. 학회장에서는 이미 리셉션 진행이 한창이었다. 학회에 등록하고 리셉션에 들어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다음 날 학회 발표와 저녁 식사를 위해서 바로 호텔로 돌아왔다.

실제 학회 일정이 시작된 둘째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학회장으로 향했다. 둘째 날에는 발표할 HCI4UCE 세션의 논문 발표를 들으면 되기 때문에 미리 어떤 내용을 들을지 고민할 필요는 별로 없었다. 발표할 세션이 시작되기 전에 오전 9시에 시작된 키노트 스피치를 경청했다. "Organizing Web Services to develop Dynamic, Flexible, Distributed Systems" 라는 제목이었는데 시스템 설계의 관점에서 볼 때는 흥미로운 내용이었지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었다. "An architecture for traffic incident detection" 이라는 또 다른 키노트도 있었지만, 이쪽 내용도 주로 센서 사이의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우리의 관심 분야인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 혹은 인식에 관련된 연구와는 특별한 인연이 없었다. 내가 참석한 세션에서는 주로 시각 인식과 합성에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Easy Real Object Insertion Tool for Composite Photographs" 라는 논문은 사진을 합성해서 새로운 사진을 만들 때 자연스럽게 하는 틀을 소개하였고, "Flower Image Recognition Using Difference Image Entropy"는 사진에서 꽃에 관한 사진인지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연구에 관한 것이었다. 내 발표 순서는 오전 세션의 4번째 였는데, 세 번째 국제 학회 참석이지만 여전히 발표를 앞두면 긴장하게 된다. 질문으로는 사진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관한 점이 있었고, 코멘트로는 마이크로 블로그 시스템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더 어울리는 기술이라는 평이 있었다.

셋째 날에는 키노트 없이 오전 중에 2개의 세션이 진행되었는데, AI for advanced applications 라는 IIWAS의 하위 세션에 참석하였다. "Association mining of Time Series Dependency" 나 "KeyPhrase Exgtraction" 등의 논문은 주로 데이터 마이닝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KeyPhrase Extraction 의 경우 이전에 잠시 연구했었던 키그래프에 관한 내용과 유사점이 보여서 흥미로웠다. 그러나 이 세션에 발표된 내용의 경우 대개 많은 수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논문 숫자가 많고 시간은 짧기 때문에 질문을 포함해서 15분 안에 발표가 종료되어야 한다.) 배경 지식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오전 세션이 끝난 이후에는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아져서 호텔로 돌아가서 잠시 쉬었다가 오후에 하는 종막식에 참석하였다. 특히 어떤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선출되었는지에 관심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분야가 중요시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6개 논문 가운데 3개 논문이 모두 센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논문으로 현재 멀티 모달 센서 네트워크에 대한 열기를 느끼게 해주었다. (IIWAS 가 있었음에도 웹 관련 페이퍼는 선정되지 않은거 같았다.)

학회 일정 이후에는 몸 전신에 두드러기가 발생하여 고생의 연속이었다. 이번에 비행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경유하는 비행기 편을 선택했으나, 그 선택은 그리 좋지 않았다. 실제로는 대만까지 경유해서 도착하는 비행기편(대만-홍콩-말레이시아 3국 경유)에 하루 동안 경유지에서 숙박을 해야 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일정이었다. 다음 번에는 직항편을 선택하는 편이 나올 것 같다. 특히 호텔의 경우에도 가능한 학회에서 지정한 호텔로 예약해야 할 듯 싶다.